

작년 광주·전남 신혼부부 4천589쌍 줄었다

●통계청 '2021 신혼부부통계 결과'

전년비 각 2천52쌍·2천537쌍 ↓...전남 감소폭 '역대 최대'
초혼 맞벌이 부부 비중 2.3%p ↑...대출·주택 소유도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방역조치와 인구감소 등의 영향에 지난해 광주·전남 신혼부부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맞벌이 부부 증가로 소득은 늘었으나 주택·전세가격 상승에 대출 소유 비중·잔액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혼인 신고를 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광주·전남 거주 신혼부부(초혼+재혼)는 각각 2만9천596쌍·3만3천351쌍

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광주 2천52쌍(-6.5%), 전남 2천537쌍(-7.1%) 줄어든 수치며 전남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래로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광주는 역대 최대 감소폭을 보였던 2020년(-6.6%) 대비 0.1%포인트(p) 낮아졌다.
광주·전남 신혼부부 수는 통계 집계 이래 6년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국 기준으로도 지난해 신혼부부는 1년 전(18만3천750쌍)보다 6.9%(8만2천쌍) 감소한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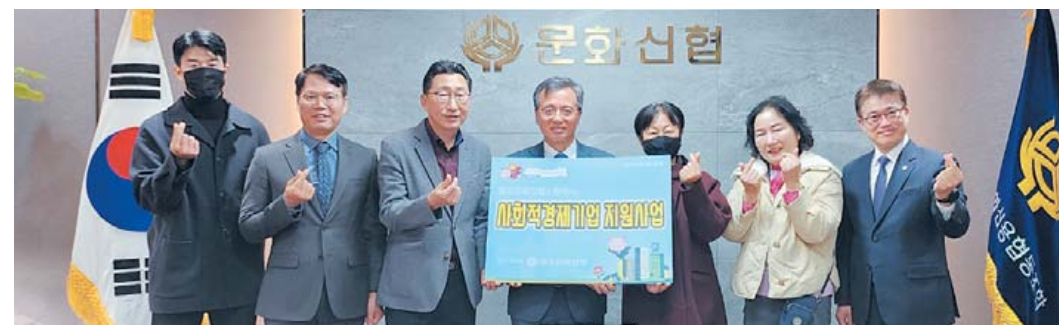
만1천455쌍으로, 통계 작성 이래 규모는 가장 작고 감소폭 비율과 감소 커플 수는 가장 컸다.
지난해 광주·전남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은 각각 전년 대비 345만원·441만원 오른 5천523만원·5천112만원이었다.
이는 맞벌이 가구가 늘어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광주·전남 맞벌이 가구 비중은 55.8%·50.6%로 2020년(광주 53.5%·전남 48.3%) 대비 양 지역 모두 2.3%p 늘었다.
소득구간 별 신혼부부의 비중은 저소득 비중은 줄어든 데 반해 고소득 비중은 큰 폭으로 늘었다.
광주·전남 소득구간 별 비중 등락폭은 1천만원 미만(-2.5%p~-1.1%p), 1천~3천만원 미만(-1.6%p~-2.6%p) 등은 줄어든 반면 7천~1억원 미만(3.1%p·2.4%p), 1억원 이상(1.8%p·2.8%p)은 증가했다.

소득 증가에 주택 소유 비중과 대출 보유 비중·잔액도 발 맞춰 늘었다.
주택 소유 초혼 신혼부부 비중은 광주·전남 각각 51.5%·52.7%로 전년(51.2%·51.3%)에 비해 0.3%p, 1.4%p 증가했다.
지난해 대출 잔액 보유 부부의 비율은 광주·전남 각각 1년 전보다 1.7%p·0.7%p 오른 88.8%·86.3%를 차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0쌍 중 9쌍이 빚을 안고 있다는 의미로 대출 잔액 중앙값은 1년 전보다 광주 1천136만원·전남 1천878만원 올랐다.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증가하면서 2020년보다 5천만원 미만 대출(-3.1%p~-3.4%p), 5천만원~1억원 미만(-1.5%p~-3.5%p) 대출은 하락, 2억원~3억원 미만(3.2%p·2.1%p), 3억원 이상(3.6%p·2.0%p) 대출은 늘었다. /양시원기자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제주서 노동법률 교육 진행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는 최근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가 주관한 장애인 당사자 및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해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는 노동법률교육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 및 종사자 40명에게 근로자의 기본 권리 인식 마련과 함께 직장 내 문제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강연했다.
정찬훈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장은 "광주센터는 장애인 권리 옹호와 관련해 지역 네트워크 및 교육, 심층·심리상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제주에 있는 기업 또는 장애인기관들과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해 장애인 근로자 상담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광주문화신협이 최근 우리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인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디자인앤본두', '행복예술단',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등 4곳에 총 2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기탁했다.

광주문화신협, 사회적기업 후원 '눈길'

예금가입자 이자 0.5%에 신협이 1대1 매칭 기금 조성

광주문화신협이 예금 가입자와 신협이 함께 조성한 사회적예탁금을 처음으로 활용, 지역 사회적기업을 후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광주문화신협에 따르면 최근 우리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인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디자인앤본두', '행복예술단',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등 4곳에 총 2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기탁했다. 해당 후원 물품 구매는 사회적예탁금으로 마련한 기금을 활용했다.
사회적예탁금은 예금 가입자와 신협이 함께 조성하는 기금으로, 2019년 7월 처음 출시됐다. 예금자가 사회적예탁금에 가입하면 만기 또는 해지 시 일반 정기예금 금리보다 0.5%를 더 받고

신협은 0.5%의 이자분을 지원해 재원을 마련한다. 이 재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구매 및 이용을 돕거나 금전적으로 후원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금융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기금 200만원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조성된 재원을 기준으로 광주문화신협이 315건, 2억6천여만원으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해 마련했다.
고영철 광주문화신협 이사장은 "이번 후원은 사회적예탁금 출시 이후 조성된 기금을 처음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사회적예탁금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기수회기자

인제나 사랑받는 안마의자
87년
선진안마기술집약체

Luxury Lifestyle
보면 기분 좋고, 앉으면 행복하다.
최고의 프리미엄 안마의자를 원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REAL PRO MAF1 | MA32 | MAK1

Panasonic

파나소닉프라자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

위니아 덤채·위니아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선정

브랜드 가치평가기관 브랜드스탁 발표
덤채, 19년 연속...위니아도 3년째 뽑혀

위니아는 브랜드 가치 평가기관인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2022년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조사에서 덤채와 위니아 브랜드가 각각 63위, 69위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는 브랜드 가치 평가 모델인 BSTI (Brand Stock Top Index) 점수가 높은 브랜드를 상위 100위까지 선정해 발표하는 국내 유일한 브랜드 가치 평가 인증제도다.
이번 선정으로 덤채는 19년 연속, 위니아는 3년 연속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덤채는 230여개 부문의 대표 브랜드 1천개를 대상으로 BSTI를 조사한 결과 총 833.38점(1천점 만점)을 얻어 63위를 기록했고, 전년 대비 11계단 상승했다.
1995년 첫 선을 보인 덤채는 출시 이후 28년 만에



1천만대 생산 돌파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 매년 새로운 기능을 탑재했던 덤채는 오리지널 발효과학과 독립냉각 모드를 기본으로 2023년형 신제품에 전국 팔도 김치 맞춤 속성 보관모드를 비롯해 과일주·과일청 속성 모드를 새롭게 추가했다.
위니아는 총 831.87점(1000점 만점)을 얻어 69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1계단 소폭 상승했다.
위니아 관계자는 "앞으로도 브랜드 가치를 꾸준히 높일 수 있도록 소비자의 니즈를 고려한 고품질의 신제품을 선보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브랜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수회기자

전남신보, 창평시장 화재 피해 상인에 자금 지원

전남신보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은 최근 담양 창평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특례보증을 시행하고 현장금융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재해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은 담양군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소상공인이다. 보증한도는 재해 피해액의 범위 내에서 최대 7천만원까지며, 최장 5년간 2% 고정금리로 이용가능하다.
전남신보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

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현장금융지원단도 운영한다. 이에 따라 피해 상인은 재단에 방문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해특례보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신보 나주지점(061-333-942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양수 전남신보 이사장은 "이번 화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상인을 위해 신속한 자금지원 및 현장금융지원단 운영 등 총력을 다해 창평시장이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수회기자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시작 주요 백화점이 내년 설(1월 22일)을 앞두고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에 돌입했다. 사진은 이날 한 백화점에 진열된 선물세트. /연함뉴스